

「인간융합」

장 르: 성장 판타지 드라마

러닝타임: 약 15분

<로그라인>

인구 조절을 위해 청소년 두 명이 한 명으로 ‘융합’되는 사회. 시험을 앞둔 제호와 현석은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내며 서로의 욕망과 두려움을 마주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살아남은 현석은,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죄책감과 공허함 속에 남겨진다.

<시놉시스>

2045년 서울, 청소년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유니타스 프로젝트’의 융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두 명이 한 명으로 합쳐지고, 더 ‘가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압박 속에서 완전체가 되기를 강요받는 제호와, 제도에 반항하듯 자유를 갈망하는 현석. 두 친구는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낸다. 농구를 하고, 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나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엔 감춰진 갈등과 욕망이 드러난다.

결국 시험의 순간, 살아남은 건 제호가 아닌 현석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그는 혼란과 안도,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리고 몇 년 후, 초라한 몰골로 거리를 떠도는 그는 여전히 묻는다.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인간융합」은 시스템과 개인, 생존과 죄책감을 그려내며, 미래 디스토피아 속에서 청소년의 불안과 우정을 담아낸 성장 드라마다.

<시나리오>

FADE IN

#1. 고등학교 교실 - 오전

2045년 서울. 백색 LED 조명 아래, 교복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모두 투명한 AR 안경을 착용, 표정 없는 얼굴로 동일한 화면을 바라본다.
안경 속에는 정부 홍보 영상.

제호(17), 단정히 빳은 머리. 손끝이 잔뜩 긴장돼 있다. 필기구를 쥔 손에 땀이 차고, 노트에 적힌 글씨는 뺄뚱어진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압박감이 서려 있다.

현석(17), 험클어진 머리, 무심한 표정.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툭 던진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무리. 잠시 그의 눈빛이 살아난다.

선생님은 책상 앞에서 무표정하게 말한다.

선생님

오늘 오후부터 시험번호와 시험장 위치가 문자로 발송된다.
랜덤 배정이니까 항의는 안 된다.
공유도 금지다.

학생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짙게 깔린다.
제호는 깊게 숨을 내쉬고, 현석은 창밖 새를 끝까지 바라본다.

#2. 학교 계단 - 점심

회색 콘크리트 계단. 점심시간,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소란이 멀리서 들린다. 여긴 고요하다.
제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조회하기” 버튼. 손가락이 떨리고, 숨소리가 점점 가빠진다. 마치 버튼 하나에 생사가 걸리는 듯한 긴장.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린다.

고개를 드니, 현석이 계단 위쪽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다. 장난스러운 듯 찍었지만, 눈빛엔 묘한 슬픔이 숨어 있다.

현석

(미소 띠며) 아직도 화났냐?

제호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 지 인생 포기한 놈한테 볼 일 없다.

짧은 정적. 현석은 씩씩하게 웃는다.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화면: 수험번호 DJH54.

제호의 눈이 흔들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핸드폰도 확인한다.

같은 번호. DJH54.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제호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끝이 저릿해진다.

현석

(태연한 듯, 그러나 속내를 숨기며) 야, 기억 안 나냐? 중딩 때. 완전체 되면 배낭여행 가자고 했던 거. 지금 하면 안 되냐?

제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린다. 말은 나오지 않는다.

제호

(작게, 떨리며) 아... 어...

현석

(놀란 듯 웃으며) 오, 진짜? 난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제호의 얼굴은 더 굳어진다.

분노, 두려움, 혼란이 한꺼번에 스친다. 그러나 말은 끝내 삼킨다.

#3. 서울 골목길 - 오후

좁은 골목길. 벽면엔 홀로그램 광고판, 네온 불빛이 반짝인다.

제호는 아버지가 보낸 택배를 열어 쪽지를 읽는다.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진다. 눈빛엔 절망과 압박이 겹쳐 있다.

멀리서 셔터 소리. 현석이 배낭 두 개를 멘 채 사진을 찍고 있다.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자유롭지만, 어딘가 덧없다.

현석

(작게) 야야, 가자. 버킷리스트.

제호

(날카롭게) 너, 흡수될 거 알면서?

현석

알지.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제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린다.

#4. 농구코트 - 오후 늦게

텅 빈 농구코트. 낡은 골대, 먼지 쌓인 공. 석양이 붉게 번져온다.
현석은 카메라를 세워 녹화를 누른다. 농구공을 튕기며 웃는다.

현석

왜? 나한테 질까 봐 쫓았냐?

제호

(도발적으로) 뭐?

둘은 농구를 시작한다. 처음엔 가볍게 웃던 두 사람. 점점 치열해지고,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제호는 계속 밀린다. 숨이 거칠어지고, 눈빛은 점점 초조하다. 볼을 빼앗기고 넘어지는 순간,
손끝이 떨린다.

잠시 후, 지쳐 바닥에 드러누운 두 사람. 석양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현석

(웃으며) 거봐. 내가 이긴다 했지?

제호는 하늘만 바라본다.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5. 서울 거리 - 석양

도심 거리. 붉은 노을. 현석은 카메라로 풍경을 찍는다. 렌즈에 비친 세상은 아름답지만, 쓸
쓸하다.

제호

(터지듯) 넌 반항 같은 건 안 하냐? 왜 완전체 되기 싫다고 죽음만 기다리는데!

현석

그래서 이렇게 너랑 있는 거잖아.

잠시 정적.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린다.

현석

(작게, 눈빛 떨리며) 그래도... 너라서 다행이야. 유일한 친구였잖아.

- 플래시백: 중학교 시절. 자전거 타며 웃는 두 사람.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

현재. 현석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현석

우리 누나 알지? 완전체 됐지만 감당 못 해서... 이젠 누군지도 몰라 해.

제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린다.

#6. 시험장 앞 - 다음 날

미래식 시험장 건물. 로고: “유니타스 프로젝트.”

제호와 현석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묵직한 침묵.

현석은 카메라를 제호에게 건네며 옅은 미소.

현석

나중에... 너가 나 대신 좋은 것들 담아줘라.

제호

(조심스럽게 받으며) ...알았다.

#7. 시험장 복도

넓고 차가운 금속 복도. 붉은 안내등이 깜박인다.

제호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모퉁이에서 멈춘다. 현석이 홀로 울고 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을 움켜쥐며 참으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린다.

제호는 놀라 멈춰 서지만, 다가가지 못한다. 벽에 몸을 기대며 숨을 죽인다.

#8. 시험장 앞 벤치

다시 돌아온 현석,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다.

제호

(붉어진 눈으로) 두렵냐?

현석

(잠시 망설이다) 살고...

바로 그때, 시험 안내음. “다음 조, 입장하세요.”

현석은 손을 내민다. 옅은 미소. 제호는 그 손을 꼭 잡는다.

#9. 실험실 내부

거대한 기계음, 붉은 경고등, 흰 연기. 45도 기울어진 실험대 위, 두 사람은 결박돼 있다.

안내 방송 “인간융합을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고조되고, 두 사람의 눈이 서서히 감긴다.

#10. 현석의 집 - 다음 날 아침

어두운 방. 현석이 천천히 눈을 뜬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속... 보이는 건 현석 자신의 얼굴.

현석

(멘탈 붕괴) 왜... 왜 내가...

순간 안도감이 스치지만, 곧 절규로 번진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
뒤에서 어머니가 다가와 그를 끌어안는다.

어머니

그래... 살아 돌아와 줘서 고맙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울부짖음.

현석의 표정은 무너진다.

스마트폰 진동. 화면: “완전체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애니메이션 타스가 폭죽을 터뜨리며 웃는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기묘하게 찢겨 있고, 괴로움이 배어 있다.

#11. 서울 거리 - 몇 년 후

회색빛 도시. 현석, 초라한 물골, 낡은 카메라를 들고 걷는다.

주변 학생들은 투명 안경을 쓰고 무표정하게 지나간다. 현석은 그들을 허탈하게 바라본다.

현석 (V.O.)

제호야... 난 아직도 내가 왜 산지 모르겠어. 왜 내가 더 가치 있었던 건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보려고 해.

현석은 멈춰 서서 카메라를 들어 올린다. 렌즈 속으로 서울 거리 풍경이 잡힌다.

FADE OUT